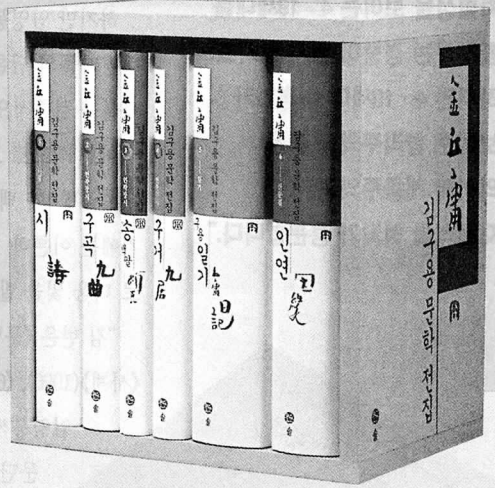


모더니즘의 전위성과 동양사상이 융합된 문학정신

도서출판 숲, 《김구용 문학 전집》 펴내

한국 현대문학사에 이채로운 빛을 던진 김구용의 문학적 전모가 《김구용 문학 전집》으로 선보였다. 초기 시부터 내밀한 고백을 담은 일기까지 아우른 이 전집에는 모더니즘의 미학적 실험을 거쳐 심오한 동양정신에 이르는 한 작가의 문학적 여정이 담겨 있다. 동서양의 예술정신이 한 작가의 내면에서 융합되는 경지가 특이한 풍경을 이룬다.



숲/A5/444면 내외/170,000원

1950년대 이후 독특한 형이상학적 시 세계를 구축했던 김구용(78)의 문학적 전모가 《김구용 문학 전집》(숲)으로 정리됐다. 전6권으로 묶인 이 전집은 시집 《시》, 연작장시 《구곡(九曲)》《송백팔(頌白八)》《구거(九居)》, 일기문 《구용 일기》, 산문집 《인연》으로 이뤄졌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작품까지 아우르는 이 전집에는 한국 문단사에 이채로운 빛을 던진 한 작가의 문학적 생애가 담겨 있다.

모더니즘에 뿌리내린 난해성의 시학

김구용은 1949년 《신천지》에 시 〈산중야(山中夜)〉 〈백담송(白塔頌)〉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신천지》의 실질적인 편집 책임자였던 김동리가 그를 발탁했다. 그는 과작의 시인이었다. 등단 후 27년 만에야 첫시집 《시》(조광출판사)를 펴냈다. 그 후 장시 《구곡》(어문각)과 연작장시 《송백팔》(정법문화사)을 띄엄띄엄 발표한다.

김구용의 시에 대한 평가에서 한결같이 따라붙는 꼬리표는 난해성이다. 평론가 유종호는 그의 시를 “소피스티케이션을 위한 소피스티케이션”이라고 폄하했고, 시인 김수영은 “난해의 장막”이라고 비판해 전봉건과의 ‘사기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런 김구용 시의 난해성과 과작성향은 그를 문단의 중심에서 비껴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김구용 시의 난해성은 필연의 소산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난해한 것은 없다”는 성찰(《현대문학과 체험》)이나 “내게 있어 시는 권태며 피로며 번덕이며 분열이다. 나는 비로소 독자와 이별할 수 있었고 자기 시에 대한 스스로의 비평이 필요했고, 타인의 훼손(毀譽)를 무시해야만 됐다”는 고백(《내 시의 발상과 방법》)이 이를 잘 보여준다.

김구용 시의 난해성은 모더니즘의 정신에 뿌리를 뻗고 있다. 죽음과 주립이 난무하던 1950년대에 그의 시는 부조리한 실존을 증언하기 위해 전위의 뒝을 감당했다. 전통양식만으로는 전후의 황폐한 상황을 묘사해 내기에는 무기력했던 것이다. 그의 시어를 지배하는 추상명사나 일상적 어법의 파괴 내지 왜곡은 내면의 심리묘사를 위한 미학적 필연이었다.

김구용의 시세계를 이루는 또 하나의 ‘품목’은 불교적 상상력이다. 일

제 말기 징용을 피해

동학사로 피신해 10여년간 불경을 학습한 전기

적 사실이 이와 무관치 않다. “사리불(舍利佛)아

/ 물고기를 안 먹느냐. / 죽음을 꾸짖고 / 죄를 비웃는가, / 의문은 대답이 없어 / 스스로를 깨닫느니.”(《축》)처럼 스스로 자기 본성을 깨우치려는 의지들이 시편에 스며 있다.

참 자아를 찾는 구도의 편력

연작장시인 《구곡》《송백팔》《구거》는 불교적 세계관에서 더 나아가 동양사상을 아우르는 정신의 편력을 보여준다. 참 자아를 찾아가는 지난한 구도의 과정을 그린 《구곡》, 참 말씀의 심원한 세계를 열어보인 《송백팔》, ‘진정한 있음’의 경지를 추구하는 《구거》는 모두 선불교적 직관과 도가적 자유분방함의 중합을 성취한다.

김구용은 시인이라는 협소한 범주를 넘어선다. 오히려 조선시대 문인의 전통을 잇는 문사(文士)라는 정의가 더 타당하다. 그는 전통 시서화(詩書畵)에 일가견을 이룬 한학자이자 서예가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예술에 대한 독보적인 해석가로 정평이 나 있다. 《고도의 예술과 인간성》에서 그의 이런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선생(추사)의 학문을 존경함은 남북 10여년의 유배생활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 연구 태도 때문이다. 선생의 시·문을 감탄함은 출중한 인격 때문이 아니다. 삼동(三冬)에 핀 연꽃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선생의 서화를 귀중히 여김은 천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투철한 힘이 주는 감동 때문이다.”

김구용은 또한 동양고전을 유장한 우리말로 풀어낸 번역문학가이기도 하다. 《노자》《채근담》을 비롯, 《삼국지》《열국지》《수호전》《옥루몽》 등이 그의 손을 거쳐 나왔다. 이 번역서들은 숲에서 《김구용 번역문학 전집》(전37권)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 박천홍 기자